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国家外语非通用语种本科人才培养基地系列教材

综合韩国语教程

总主编 张光军

韩国文学 作品选读

下

金英今 编著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解放军外语音像出版社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国家外语非通用语种本科人才培养基地系列教材

综合韩国语教程

总主编 张光军

韩国文学 作品选读

下

金英今 编著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北京

解放军外语音像出版社
洛阳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文学作品选读. 下 / 张光军总主编; 金英今编著. —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8.10

(综合韩国语教程)

ISBN 978-7-5600-7899-1

I. 韩… II. ①张… ②金… III. 朝鲜语—阅读教学—教材 IV. H559.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8) 第 161228 号

出 版 人: 于春迟

责任编辑: 尚明明

装帧设计: 孙莉明

出版发行: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社 址: 北京市西三环北路 19 号 (100089)

网 址: <http://www.fltrp.com>

印 刷: 北京京科印刷有限公司

开 本: 787×1092 1/16

印 张: 16.5

版 次: 2008 年 10 月第 1 版—2008 年 10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600-7899-1

定 价: 33.90 元

* * *

如有印刷、装订质量问题出版社负责调换

制售盗版必究 举报查实奖励

版权保护办公室举报电话: (010)88817519

物料号: 178990001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国家外语非通用语种本科人才培养基地系列教材

综合韩国语教程

顾问 金敏洙 韩国高丽大学教授
朴甲洙 韩国首尔大学教授
李翊燮 韩国首尔大学教授
李得春 中国延边大学教授
许 龙 韩国外国语大学教授
总主编 张光军 解放军外国语学院教授

参编院校及项目负责人 (按汉语拼音字母顺序排列)

北京第二外国语学院	金振杰
北京联合大学	权震红
北京外国语大学	苗春梅
北京语言大学	崔顺姬 刘英明
大连民族学院	尹敬爱
对外经济贸易大学	徐永彬
韩国外国语大学	金在旭
黑龙江大学	申昌顺
济南大学	靳葆强
解放军外国语学院	金英今
辽宁大学	张东明
南京师范大学	俞成云
青岛理工大学	王延红
山东大学	朴银淑
天津师范大学	金红莲
天津外国语大学	单体瑞
西安外国语大学	吴海利
延边大学	金永寿 崔雄权
烟台大学	丁凤熙
扬州大学	文英子
郑州轻工业学院	张炎钰
中国传媒大学	孙鹤云
中国海洋大学	李龙海

出版说明

随着中韩两国交流的日益频繁，近年来中国国内迅速掀起了韩国语学习的热潮，开设韩国语专业的院校和报考韩国语专业的学生迅猛增加。但由于国内的韩国语教材和教辅资料相对匮乏，给广大韩国语学习者的学习和韩国语教师的授课都带来了很大的困难。为了促进国内韩国语教学的发展，为广大师生提供权威、系统的学习资源，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推出了“综合韩国语教程”系列教材。

“综合韩国语教程”系列教材是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国家外语非通用语种本科人才培养基地系列教材、国家级教学成果奖获奖项目系列教材，包含了“综合韩国语教程 韩国语精读教程”、“综合韩国语教程 韩国语泛读教程”、“综合韩国语教程 韩国文学作品选读”等几大系列共三十余册，构成了完备的一体化的教学解决方案。

“综合韩国语教程 韩国文学作品选读”作为“综合韩国语教程”系列教材之一，分为上、下两册，本册主要选取了20世纪的韩国文学作品，尤其是50年代以来的优秀作品作为范文。本套教材具有如下几大特色：

1. 每课包括范文节选、作品鉴赏、作家简介、单词注释、文化茶座以及课后练习等内容；

2. 书后附有作家作品索引、练习题参考答案和参考书目，便于学生学习；

3. 插图丰富多彩，有助于提高学生的阅读兴趣。

本套教材既适合韩国语专业高年级学生使用，同时也适合其他韩国语高级阶段的学习者使用。衷心希望本套教材能够帮助大家提高韩国语水平，了解韩国现状，加深对韩国全方位的理解。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8年10月

总序

随着中韩关系的不断发展,我国韩国语学习者的数量也在不断增加。各种各样的韩国语教材应运而生,呈现出百花齐放、百家争鸣的景象。我们编写的这套“综合韩国语教程”,也必将为这一绚丽的景象增添姹紫嫣红。

“综合韩国语教程”因为其科学性、规范性、系统性、实用性,被评为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入选该系列教材的各门课程的教材,都在现实教学中使用过,有些还在比较大的范围内使用了多年,经历了实践的检验。在广泛征求老师和学生们的意见后,编者又进行了相应的修改。因此,这是一套比较成熟的教材。

总主编从事韩国语教学已有30余年,编写出版各类韩国语教材近20部,发表与韩国语教育相关的论文近百篇,并获得过国家级教学成果奖等各类奖项。参加教材编写的各校老师,都是既有丰富教学经验,又有教材编写经验的骨干教师。此外,该教材还聘请了国内外韩国语学界著名学者担任顾问。因此,这套教材的质量是可信的。

本教程在编写过程中,参考了国内外各类参考资料和大量相关教材,在此,谨对这些资料和教材的作者表示衷心的感谢。

诚挚地敦请各位专家、学者、老师、同学们对教材提出宝贵的意见。希望通过大家的共同努力,使我们的教材日臻完善。

总主编 张光军

2008年6月于古都洛阳

前言

中韩两国一衣带水，我们需要长期和他们打交道，需要彼此沟通和了解。文学是人学，通过韩国文学，我们可以感受到韩国人的内心情感和精神世界。

韩国文学系指上古时期到现在的韩民族的文学。历史上以各种体裁的无数种形态存在过的韩国文学，按照传承方式和表达语言可分为口传文学、汉文文学和国文文学。韩国的口传文学是指韩国人用口语形式创作和传承下来的文学，是韩国文学的本源和根基。

公元前后汉字与汉文的传入，为只以口传文学形态存在的韩国文学提供了新的发展机遇，从而开拓出汉文文学这一韩国文学的崭新领域。韩国的汉文文学是指韩国人的生活体验由韩国人以古代汉文（文言文）的形式表现出来且传承下来的文学，它形成于公元5世纪之前，直到19世纪末依然显示出旺盛的生命力。从这一点来说，“韩国的中世纪堪称是汉文文学的时代”。^①

1443年，训民正音的创制为韩国国文文学的发展与成长提供了语言基础。由于韩文作为记录韩国语的文字较汉文浅显易懂，所以文学的读者阶层得到了扩大，文学也就有望具有更加富于民族特性的形式和内容了。但是，训民正音的创制并没能直接促成国文文学的发达，早已习惯于使用汉文的士大夫阶层鄙视训民正音并视之为谚文，很长一段时间

^① 赵东一等：《韩国文学论纲》，北京大学出版社，页7。

都不肯使用它。从一些士林的儒生和闺中妇女用谚文写作信笺并翻译和创作小说开始，韩国的国文文学才迈开了其艰难的成长步伐。韩国的国文文学在汉文文学的夹缝中不断壮大，到了17世纪以后得到长足的发展并取得了与汉文文学并肩而立的地位。

韩国的口传文学、汉文文学和国文文学在不断的交互作用下成为一个有机的整体，同时也由于语言和传承方式以及社会背景的差异而各自保留了特性。如果说口传文学的主体是以农民为主的下层民众而汉文文学的主体是两班士大夫，那么国文文学的主体则是新兴的市民阶层。文学主体的不同，必然导致文学内容和形式的不同。如果说包括汉文文学在内的韩国古代文学的成长和中国文学的影响密不可分，那么韩国国文文学的成长离开对西欧文学的接受亦无从谈起。

到了19世纪末20世纪初，欧洲主导的近代化进程导致汉文文学和口传文学丧失了其赖以生存的基础，而国文文学则扩大到了文学的几乎全部领域。韩国文学从只有口传文学的时代，经过口传文学与汉文文学共存及口传文学、汉文文学与国文文学并存的时代，进入了国文文学独霸天下的时代。如果说中世纪是汉文文学的时代，那么自20世纪以来则可以说是国文文学的时代。但是，20世纪前半期的韩国处在日本殖民统治之下，其文学作为民族文学的品格严重受损，40年代还出现了大量用日语创作的文学作品。

在漫长的历史岁月中，韩国语虽在语法结构上没有发生太大的变化，但是其常用词汇、习惯用语和标记法随着时代的变化发生了不少改变。而且，纵观从古至今的韩国文学发展，1945年民族解放以后，20世纪后半期以来的韩国文学民族特色鲜明，作品在内容上更加丰富，语言上更加鲜活，也更具有可读性。有鉴于此，本书主要选取20世纪的韩国文学作品，尤其是50年代以来的优秀作品作为范文，并附以单词注释、作家简介、作品鉴赏、文学常识、健康幽默、成语故事、文化茶座、补充单词、练习题、参考译文和参考文献等学习项目。单词注释重

点解释作品中具有文化特色的词汇；作家简介包括作家的生卒年月、出生地以及能够反映作家的人品和性格的逸闻趣事；作品鉴赏选择一篇语言流畅、生动有趣的具有代表性的批评文章，内容包括作品在文学史上的地位、对后世的影响等；文学常识给出和作品有关的文学知识；文化茶座介绍和作家作品相关的背景知识；健康幽默和成语故事提供可读性强的幽默故事和成语故事；补充单词为作家介绍、作品鉴赏、文学常识、健康幽默、文化茶座等项中出现的新词注解；练习题围绕作家作品给出填空、选择、问答、改错、论述和翻译等题型。另外，有些小说还附有参考译文。教材分上、下两册，每册分别附上作家作品索引、练习题参考答案及参考书目。

《综合韩国语教程 韩国文学作品选读（上／下）》旨在提高学习者对当代韩国人和韩国文化的认知度，为中韩两国的文化交流和世代友好发挥积极的作用。在范文的选择上兼顾思想性、艺术性和可读性，小说节选作品中精彩的段落，而诗歌则采用作品加评论文的方式以加深理解。另外，课文的编排次序一律依照作品的写作年代或发表年代之先后，与韩国文学发展史同步，同时插入相关作家作品的图片以提高阅读学习的兴趣。

最后，衷心祝愿每一位学习者都能够快快乐乐地走进韩国人的内心深处。

编者识于洛阳，时当牡丹盛开

2008年4月18日

目 录

I	제 1 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8	제 2 과 필론의 돼지
38	제 3 과 우리들의 날개
58	제 4 과 타는 목마름으로
66	제 5 과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77	제 6 과 하늘
90	제 7 과 프란츠 카프카
101	제 8 과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112	제 9 과 행복
123	제 10 과 숨은 꽃
143	제 11 과 아름다운 얼굴
165	제 12 과 너에게 묻는다
176	제 13 과 흔들리며 피는 꽃
185	제 14 과 눈물은 왜 짠가
198	제 15 과 그 강에 가고 싶다
211	제 16 과 새순
232	부록1: 작가와 작품 색인
233	부록2: 연습문제 참고 답안
251	부록3: 참고서

제 1 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1976년 〈문학과 지성〉에 발표된 이 작품은 같은 제목의 연작 12편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중편 소설이다.

1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 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이에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중략)

3

나는 방죽가 풀썩에 엎드려 있었다. 온몸이 이슬에 젖어 축축했다. 조금만 움직이면 잡초에 맺힌 이슬방울이 나의 몸에 떨어졌다. 한밤을 나는 방죽가 풀썩에 엎드려 새웠다.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다. 어둠이 조금씩 뒷걸음쳐 가기 시작했다. 마지막 밤을 “우리의 집”에서 보내지 못했다는 아픔이 목을 타고 올라왔다. 동네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비행접시를 타고 온 외계인들이 영희를 태워 갔다는 소문은 터무니 없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어머니는 말했다.

“너희들이 펍펍 놀고 있기 때문에 나갔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게 너희들 책임이야. 다른 아이들은 멀쩡하게 남아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쫓겨났니?”

“어딜 가면 꼭 말을 하고 나갔었잖아? 나는 영희가 집을 나간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었겠지.”

형이 말했다.

형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형은 언제나 나보다 생각이 깊었다. 아는 것도 많았다. 학교를 그만두자 더 많은 책을 읽었다. 아버지가 난장이만 아니었다면 형은 학자가 될 사람이었다. 형은 틈만 있으면 책을 읽었다. 나는 형을 위해 기계에서 돌아 나오는 인쇄물을 접어다 주고는 했다. 아주 어려운 것도 형은 참고 읽었다. 돈을 타면 헌 책방에 가

서 사다 읽기도 했다. 책은 형에게 무엇이든 주었다. 형은 고민하는 사나이의 표정을 종종 지어 보이고는 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공책에 옮겨 적기도 했다. 형의 공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적혀 있었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총탄이나 경찰 곤봉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다. 우리의 도시 한 귀퉁이에서 젓먹이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도 폭력이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없는 나라는 재난의 나라이다. 누가 감히 폭력에 의해



질서를 세우려는가? 십칠 세기 스웨덴의 수상이었던 악셀 옥센스티르나는 자기 아들에게 말했다. “애야, 세계가 얼마나 지혜롭지 않게 통치되고 있는지 아느냐?” 사태는 옥센스티르나의 시대 이래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지도자가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의 고통을 잊어 버리게 된다.’

나중에 나는 말했다.

“형은 이상주의자야.”

말을 하고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나도 형만큼 자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어려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랐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다. 나는 고민하는 이상주의자의 얼굴을 쳐다 보았다. 기대는 어그러졌다. 형은 화가 나 있었다. 나는 그때 형이 화를 내야 하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우리는 난장이의 아들이었다. 형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풀썩에서 나갔다. 나는 돌맹이를 집어 방죽을 향해 던졌다. 소리없이 물방울만 올랐다. 마당에서 나는 계속 돌맹이를 던졌다.

“영호야.”

어머니가 말했다.

“그 돌맹이질은 그만 두고 동회 앞이나 나가 봐라.”

“가 보나마나예요. 한 시간 전에 이십 이만 원 했는데 또 올랐겠어요?”

“그래도 가 봐. 이십 오만 원이면 팔겠다고 그래.”

나는 다시 돌멩이를 집어 방죽을 향해 던졌다.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승용차도 몇 대 서 있었다. 그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었다. 입주권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었다. 팔려는 사람들은 초조한 얼굴로 거간꾼들의 눈치만 보았다. 한결같이 영양이 나쁜 얼굴들이었다. 거기서는 눈물 냄새가 났다. 나는 눈물 냄새를 가슴으로 맡았다. 누가 나의 팔을 끼었다. 영희였다. 영희는 햇볕에 발갛게 탄 얼굴을 옆으로 저어 보였다. 잠실까지 갔다 오는 길이었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장 근처의 복덕방 시세도 이십 이만 원이라고 했다. 이젠 더 이상 버틸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작은 오빠, 엄마더러 그만 팔자고 그래.”

영희가 말했다.

“갑자기 내려가면 어찌려고 그러지?”

“저에게 파세요.”

웬 여자가 말했다.

“소개업자가 아네요. 직접 입주하려고 그래요. 명의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아주머니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아파트에 아주머니 이름으로 입주하게 돼요.”

“그건 불법 아네요?”

여자는 뺨뺨한 자세로 서서 땀을 찍어냈다.

“동회에 들어가서 건설계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말했다.

“왜 불법적인 일을 처리하느냐고 따져 보세요.”

“이십 이만 원은 비싸요. 만 원만 깎아 줄래요?”

“아주머니.”

내가 말했다.

“헐릴 저희집 같은 걸 새로 지으려면 백 삼십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일해 지은 집예요. 우린 그걸 이십 이만 원과 바꾸어야 될 입장예요. 거기서 전세 주었던 돈 십 오만 원을 제하고 나면 칠만 원이 남습니다.”

“어쨌든 이십 일만 원에는 안 되겠다는 얘기 아네요?”

나는 말하지 않았다. 여자가 돌아섰다. 영희가 작은 주먹으로 나의 등을 쳤다. 잠시 후에 또 한 번 쳤다. 영희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영희에게는 청바지도 잘 어울렸다. 나는 영희의 얼굴을 보지 않고 돌아서 걸었다.

“팔지 말고 기다려요.”

승용차 안에서 한 사나이가 말했다.

“내가 사겠소.”

“얼마예요?”

“얼마면 팔겠어요?”

“이십 오만 원.”

“좋아요. 저녁에 가죠. 이웃에 팔 사람이 또 있으면 싸게 팔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날 밤 승용차 안의 사나이가 우리 동네의 나머지 입주권을 모두 사 버렸다. 그는 다른 투기업자들이 이십 이만 원에 사는 것을 이십 오만 원씩 주고 모두 사 버렸다. 그날 밤에도 영희는 팬지꽃 앞에 앉아 기타를 쳤다. 영희는 팬지꽃 두 송이를 따 하나는 기타에 꽂고 하나는 머리에 꽂았다. 그리고 꿈쩍도 않고 기타만 쳤다. 사나이가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했다.

“이십 오만 원이 분명하죠?”

어머니가 물었다. 사나이를 따라온 나이 든 사람이 검은 가방을 열어 돈을 보여 주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매매 계약서를 썼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서류가 든 봉투와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 아버지는 계약서 매도자란에 ‘金不伊’라고 쓰고 도장을 눌렀다. 나이 든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아버지 이름이 갖는 아픈 바람의 뜻을 그가 알리 없었다. 어머니는 소중한게 싸 두었던 것들을 하나

하나 넘겨 주었다. 식칼 자국이 난 표찰, 아침 수저를 놓고 가슴을 세 번 치게 한 철거 계고장, 집을 헐값에 버리기 위해 생전 처음 내 본 인감증명 두 통, 미리 서명해 두었던 명의변경 신청서, 힘 하나 없는 식구들의 이름과 나이가 차례대로 적혀 있는 주민등록등본 두 통. 마당가 팬지꽃 앞에 앉아 있던 영희가 고개를 숙였다. 사나이가 돈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뒤로 물러 앉았다. 아버지가 그것을 받았다. 꼭 삼 초 동안 들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넘겨 주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돈을 받아들었다.

(후략)

4

(전략)

“네가 집을 나가구 식구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이 방 창문에서도 보이지. 어머니가 혈린 집터에 계셨었다. 너는 둘째 친구 이번엔 아버지가 어딜 가셨는지 모르게 됐었단다. 성남으로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셨어. 길게 애길 해 뭘 하겠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벽돌 공장 굴뚝을 허는 날 알았단다. 굴뚝 속으로 떨어져 돌아가신 아버지를 철거반 사람들이 발견했어.”

그런데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두 손으로 가슴을 쳤다. 혈린 집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키가 작았다. 어머니가 다친 아버지를 업고 골목을 돌아 들어왔다. 아버지의 몸에서 피가 뚝뚝 흘렀다. 내가 큰 소리로 오빠들을 불렀다. 오빠들이 뛰어 나왔다. 우리들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쳐다 보았다. 까만 쇠공이 머리 위 하늘을 일직선으로 가르며 날아갔다. 아버지가 벽돌 공장 굴뚝 위에 서서 손을 들어 보였다. 어머니가 조각마루 끝에 밥상을 올려 놓았다. 의사가 대문을 들어서면 소리가 들렸다. 아주머니가 나의 손을 잡았다. 아아아아아아 하는 울음이 느리게 나의 목을 타고 올라왔다.



“울지 마, 영희야.”

큰오빠가 말했었다.